제4차
당대회에 황금의 전야를!
황철
제2의 용광로
화학섬유공장
제4차 당대회에
로력적 선물을!
화살
1961년 7월호 (144)
안 창수 그림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3 - AUG 2 7 1962
Copy

한 마음 한 뜻으로!

안 창수 그림

선물

리 철희

녀 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이구만요

남 미안합니다. 선물을 마련하기에 좀 바빠서…

녀 오래지 않아 한 가정에서 살게 될텐데 선물은 웬 것을

남 아니 그럼 동무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가요?

녀 가정을 꾸린 후에 둘이 의논해서 필요한걸 사면 되지 않아요? 무슨 선물을 마련해요?

남 동무는 무슨 선물로 착각하고 있소?

녀 그럼 무슨 선물인가요?

남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 드릴 선물 말입니다.

녀 아이구 어쩌나? 난 그걸 생각지 못했는데…

남 그래 동무는 당 대회 앞에 무엇을 선물하시렵니까?

녀 저는 당 대회에 풍년 전야를 선물하렵니다.

남 풍년 전야라…

녀 우리 조합원들은 당 대회에 백만 톤 알곡 증산의 황금 전야를 선물한단 말씀이지요

남 장하십니다. 누구나 다 당 대회에 보다 훌륭한 선물을 드릴려구 붉은 마음 일념으로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녀 그렇구 말구요. 어머니—당. 오랜 기간 중중첩첩의 난관을 극복하면서 우리를 승리에로 인도한 당!

남 사회주의 락원을 이 땅에 건설하는 당!

녀 당의 령도로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보람찬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남 우리는 당의 령도하에 마음만 먹으면 못만드는 물건이 없고 못짓는 공장이 없지요

녀 그렇구 말구요.

남 착취와 빈궁은 력사 교과서나 력사 소설에서만 보게 되였고…

녀 우리의 생활은 급속히 향상되고…

남 당의 두터운 배려로 과학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황금의 예술은 세계를 경탄케 하고…

녀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 받고, 아들딸은 무료로 공부시키고…

남 정말 이 좋은 세월, 이 모든 것은 당이 선물해 주었지요

녀 그러니까 조선 인민은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당에 맡기고 살지 않습니까!

남 우린 긴장성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

녀 당 대회에 보다 값 높은 선물을 합시다.

남 금년도 계획을 더 빨리 더 훌륭히 수행하는게 가장 귀중한 선물의 하나이지요 철과 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구…

녀 당 대회 앞에 100만 톤 증산의 풍성한 황금 전야를 선물하고 100만 정보의 토지를 개간해서 농경지와 과수원 뽕밭을 조성해야지요

남 80만 톤 물고기 잡이의 풍어기를 선물하고…

녀 경공업 원료 기지를 조성하고 아름답고 쓸모 있고 튼튼한 각종 일용품과 맛 좋은 다양한 식료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요.

남 모든 사람을 적극분자로 교양 개조하고 전체 군중을 당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 행복하고 단란한 하나의 붉은 가정으로 꾸려야지요.

녀 당의 붉은 편지를 지침으로 청산리 방법을 모든 부문에 구현하면서…

남 모든 사람이 천리마 휘장을 가슴에 번쩍이며 당 대회를 맞이해야지요. 자 우리도 이야기만하고 귀중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어서 당 대회에 드릴 선물을 마련합시다.

무쇠 장군이 드리는 꽃바구니

김책 제철소 로동자들은 제 4차 당 대회에 더 많은 철과 강재를 선물하기 위하여 오는 8. 15까지 12만톤을 생산하며 년말까지 계획 외에 8만톤을 더 증산할 것을 결의하고 새로운 혁신의 불길을 올리고 있다.

최 영근 그림

100만톤 증산 계주

원 광수 그림

오늘과 옛날

무지개 비끼네

로동당 시대에
얼시구 절시구 좋아라
입을 옷 걱정 모르는 나라
래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오늘은 어제보다 좋고
니트론 나이론…

일어 선다네
신의주 청진이 해답해
무명평 갈밭들이 설레이네
왕모기만 웡웡 거리던
강낭대가 설레이네

우리는 소리 높이 자랑하네
온 세계를 향해
비날론! 비날론!
오 돌파 돌이 소리 치네

지붕 우에도…
방방 곡곡의 새 공장
방직기 요란히 돌아 가는
농민의 옷 자락에도
영화관으로 가는
보람찬 하루일 마치고
새옷 무지개!
명절 날이면 눈부신
비가 오면 비옷 무지개!

학생들의 늠늠한 교복에도…
갈아 입히는
철따라 늦을세라
학교 가는 새동저고리 소매에도
매대 우에도
손님들 밀려드는 백화점

직포공의 얼굴에도 무지개!
줄줄이 비끼는 무지개
쏟아지는 천필 폭포 우에
평양과 구성에서 모든 곳에서

수백가지 행복의 무지개
철 따라 바꾸어 비끼는
이 땅의 무지개 자랑하세
사시장철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지개 아름답다더냐?
누가 여름 강 언덕에만
무지개 비낀다더냐?
누가 비온 뒤에만
락원에 무지개 비꼈네

모르는 죄였든고?
좋은 옷 입을 줄
이 나라 사람들이
토목바지 하나 없었으니
명절날에 갈아 입을
썩어 나도
비단옷 털 외투
고대광실 높은 집에선

실어간 놈 뉘였든고?
빼앗아간 놈 뉘며
현해탄을 노렸으니
분노의 눈으로
목화더미
태산 같은 고치와
역두와 항구마다

너무나 부지런한 죄였든고
이 나라 사람들이
소문 자자했으니
얼어 죽었다는
이름 모를 령마루에선
등뼈가 휘도록 누에를 쳐도
온 봄 여름

가슴 어였네
삼복지경 베짜는 소리
할머니 맥없는 물레질 소리
원한을 탄식하시듯 드렁드렁
부엉 지막에서
거미줄 쓴 컴컴한

눈물 고였었네
어머니들 얼굴에
누더기를 꿰매며 한숨 짓던
잠 못드는 빨간 살덩이를 안고
추워서 오들오들 떨며

관솔불 아래 밤을 새웠으니
이불 한채 없는 귀틀집에선
베적삼으로 찬서리 막아냈고
목화송이 피어나도
가을이면 가을마다

가랑잎이였든고
벼짚이였든고?
그대 알몸을 감싸 준 건
세상에 첫 울음 터질 때
머리 둘 곳 없었다네
하늘은 높아도

피어 났어도
목화꽃은

시 안충모, 그림 송시업

가는 정이 있어야

안 창수 그림

오는 정이 있다

비단 거리에 온 할아버지

철산 할아버지는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손자가 로력 위훈을 떨친다는 소식을 듣고 공장에 찾아 왔다.

난생 이런 큰 공장을 처음 보는 할아버지는 단통 놀라면서 기절을 할 지경이였다.

《야! 정말 소문과 같이 굉장한 비단 공장이로구나, 옛날 속담에 지성이 지극하면 돌우에도 풀이 난다더니 로동당에 충실한 사람들의 지성이란 그 보다 더하니 말이다. 백일에 이리 큰 비단 도시를 건설하다니?…》

손자는 너무나 경탄한 할아버지를 진정시킨 다음에야 공장 이야기를 하기로 작정하였지만 할아버지가 너무나 졸라대는 바람에 어느덧 손자와 할아버지 간에는 문답이 벌어지게 되였다.

《대관절 이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

손자에게 이렇게 설명을 요청한 할아버지는 허리춤을 한번 추고 기침을 한 다음에 손자의 입을 쳐다 보면서 귀를 바싹 도사리였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다.

《이 비단 도시에는 큰 공장만 하더라도 30여개나 꽉 들어 앉았습니다.

우리 스프 공장에서만두 한해 동안에 인견 스프를 2만 톤씩 생산하는데, 그 뿐이나요, 괄프 공장, 회수 공장, 염색 공장, 공작 공장, 방적 공장… 이건 나 혼자서는 죄다 이야기할 수 없으리만치 굉장한 공장이랍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련방 주어 대면서 설명하는 바람에 흥이 나서 손'가락을 꼽았다 폈다 하다가 〈후—〉 하고 큰 숨을 한번 내쉬였다.

그리고 난 다음 할아버지는 공장 규모에 대해서는 리해가 됐다는 듯 슬쩍 화제를 돌리여 이 공장에서 소화된다는 갈'대와 옥수수'대에 대한 이야기를 청했다.

《할아버지, 또 놀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손자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갈파 옥수수'대에서 섬유를 뽑아서 가지 각색 옷'감을 짠답니다.》

손자의 말을 듣고 난 할아버지는 마음 속에 흐뭇한 만족감으로 꽉 찼다.

《옳지 옥수수발이 이제는 비단발으루 변했단 말이지…》

할아버지의 입 밖에서는 어느덧 이런 말이 튕겨 나왔다.

《옥수수가 발 곡식의 왕이라더니 참 지당한 말이다. 글쎄 먹여 주고 입혀까지 주니 말이야…》 하고 손자를 쳐다 보던 할아버지는 싱글싱글 웃어 보였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흥미를 더 일층 돋구기 위해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반문했다.

《할아버지, 우리 공장에서 1년 동안에 짜내는 천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는 무슨 소리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멍하니 있었다. 그러자 손자는 자기의 설명이 할아버지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 채리고 차근차근 생동한 실례를 들어 가면서 말씀해 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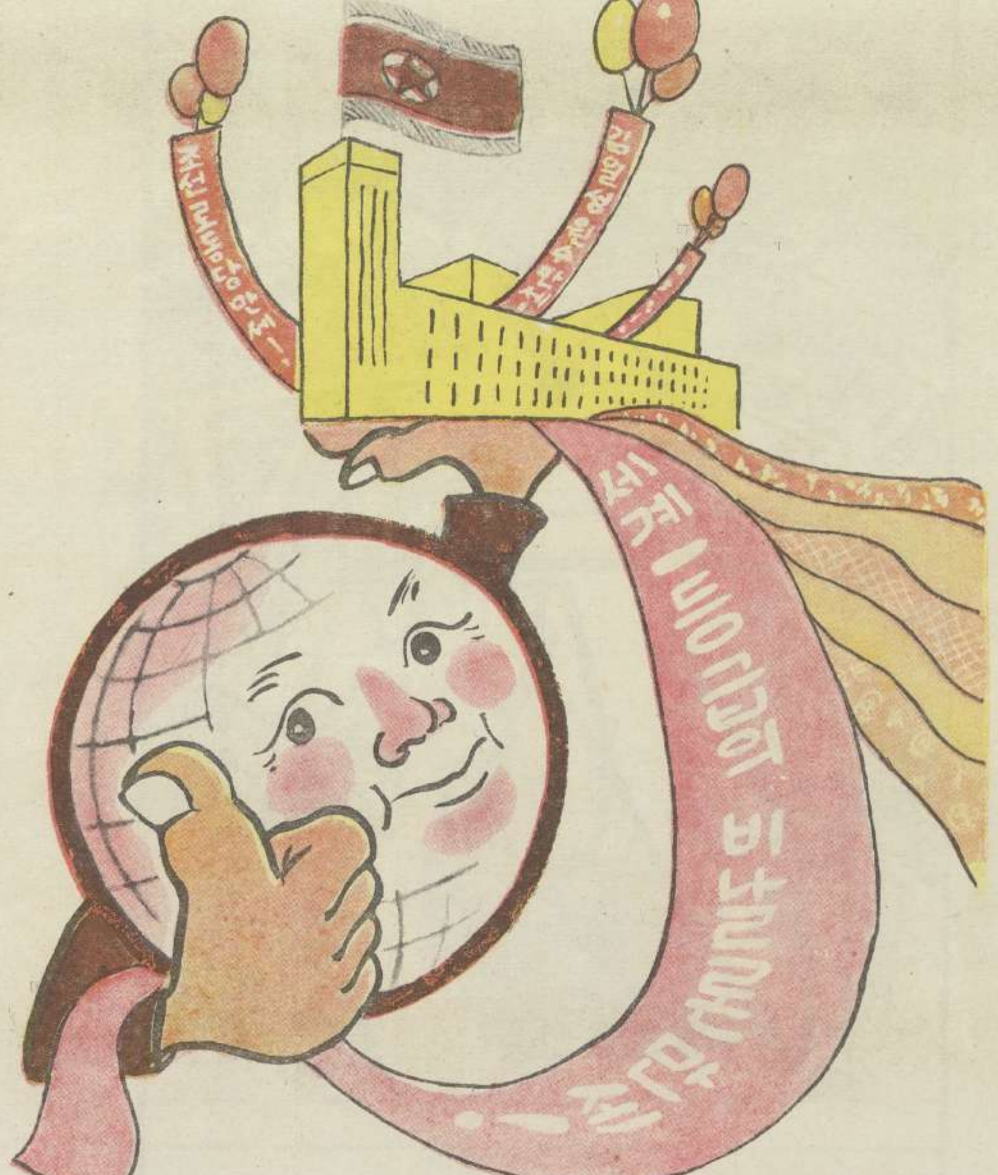
《우리 공장에서 1년 동안에 쏟아져 나오는 고급 천만 하더라도 1억 1천만 메터나 되는데 이건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아홉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와 맞먹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이 많은 옷감만 짜는게 아니구 1년에도 3만 여 톤의 고급 종이도 팡팡 쏟아져 나온답니다 할아버지.》

《옳다. 화학이라는게 페물을 모르고 마술사처럼 만능 재간을 다 피운다더니 알만하다》라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손자의 해설에 만족을 표명했다.

할아버지는 오래 사는 덕분에 이런 행복을 받게 되였다고 감탄에 취해서 어쩔줄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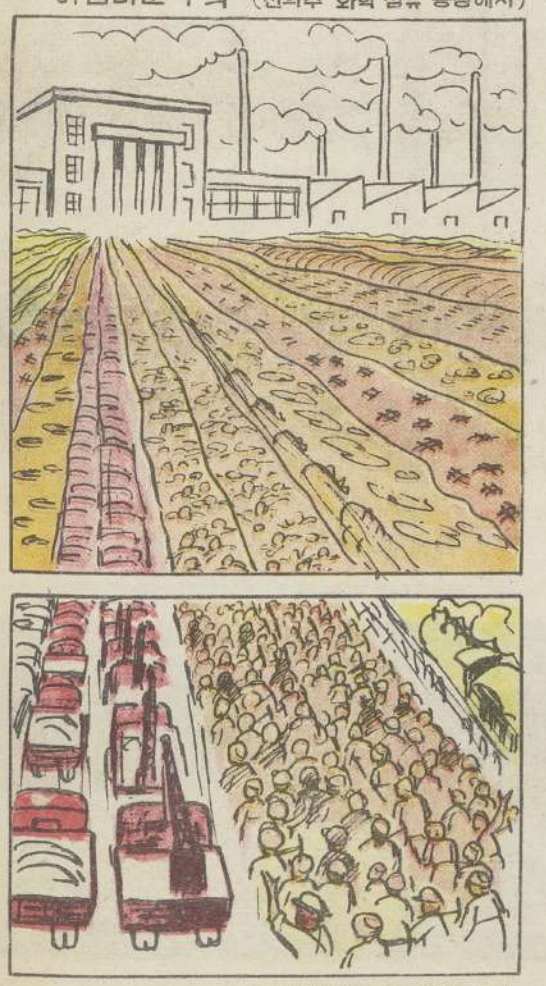
서 득창

최 영근 그림



함흥시 미술 협동 조합 장 현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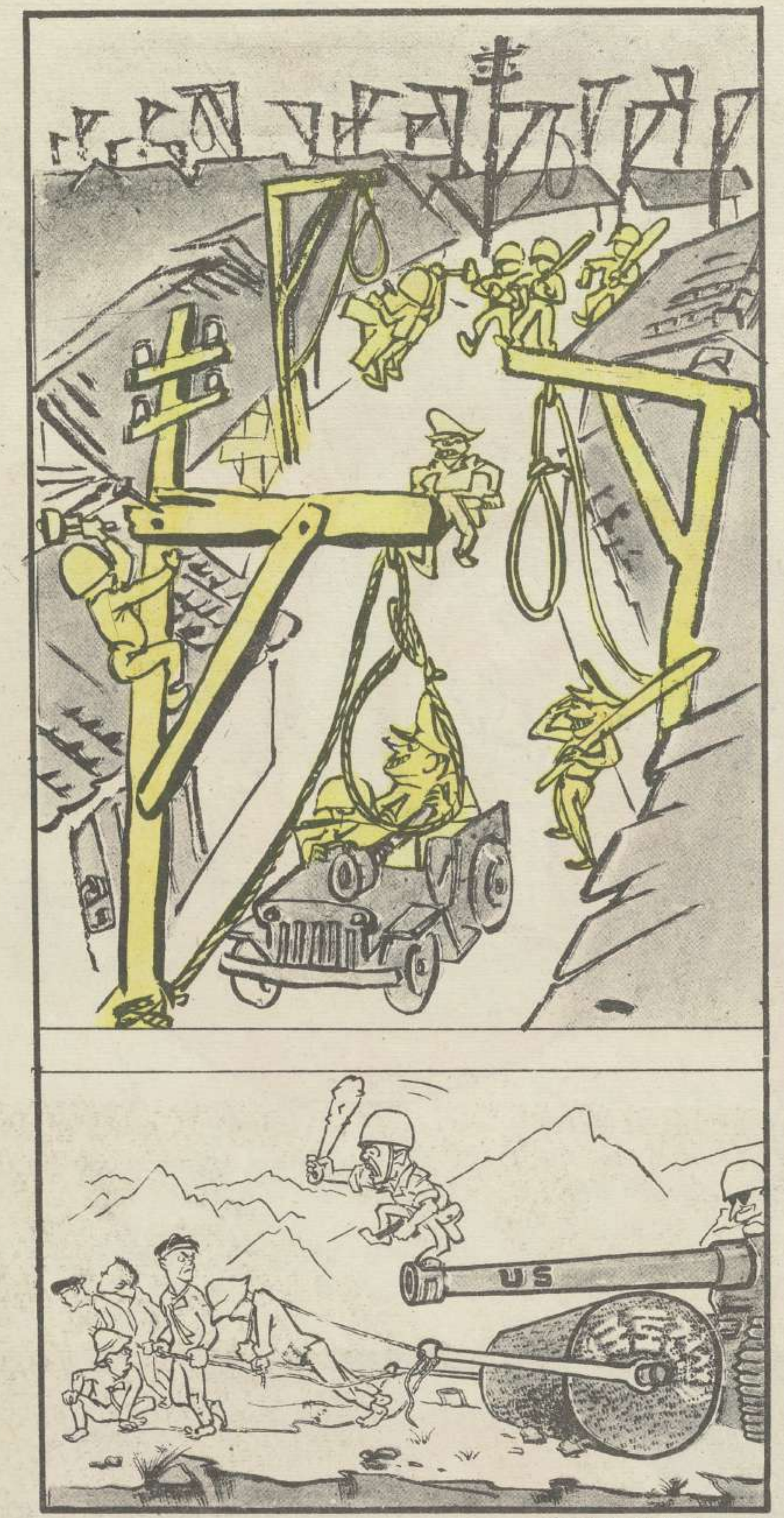
1억 1천만 메터의 비단에 놓인 아름다운 무늬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에서)



평북 일보사 허 성필 그림

송 시엽 그림

《국토》가 《건설》된다



박 승히 김 동철 그림

일제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

미제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일본 군국주의자까지 끌어 들여 남조선에서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는 저들의 침략 기반을 수습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일본 반동 지배층은 때를 만난듯이 남조선에 기여 들려고 호시 탐탐 노리고 있다.

미제—어서 들어가 도와주게…

박 승히 그림

《즉결 재판》놀음

문 철우

(갑…《군사 재판관》을…《피고》)

갑: 《피고는 듣거라! 에— 피고는 지금부터 43분 전에 서울시 을지로 대성 잡화점 안에서 평화적 통일을 선전하였다는 "헌병„의 기소가 있었음으로 "혁명 군사 위원회„의 "포고 18호„에 의하여 이에 징역 15년을 언도한다! 피고는 최후 진술할 것이 있느냐?》

을: 《그건 너무도 원통합니다. 저는 대성 잡화점에서 다만 비누를 한장 살려고 했을 다름이온데…》

갑: 《비누!?》

을: 《네, 네. 잡화점 주인은 무슨 표의 비누를 쓰시겠느냐, "공작„ 표를 쓰시겠느냐, "퀸. 메리„ 표를 사시겠느냐 하고 비싼 것만 주어 대길래, 저는 아니, 그런 건 말고 저 "평화„ 표 비누를…

갑: 《평화 표!?》

을: 《네, 네. 그런데 옆에 섰던 "헌병„ 나으리가 다짜고짜로 좀 가자고…》

갑: 《이놈! 그러니 네놈이 대낮에 감히 "평화„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는 냈단 말이지, 앙?》

을: 《…?》

갑: 《피고는 듣거라! 네 "죄„가 15년이 아니라 그 이상 징역에 마땅한 "중죄„이지만 평화적 통일이란 다섯자 중에서 두자만을 입 밖에 냈다는 진술을 특히 참작하여 이에 15년의 5분의 2, 즉 6년의 징역을 언도하노라! 알겠느냐?》

을: 《…?》

갑: 《"헌병!„그 다음 "피고„를 끌어 왔!》

원 광수 그림

망할 세상 (6) (엎친데 덮친격)

박 승히 그림

쪽배의 운명

백 인균 그림

남조선 기행

한산한 바다'길 이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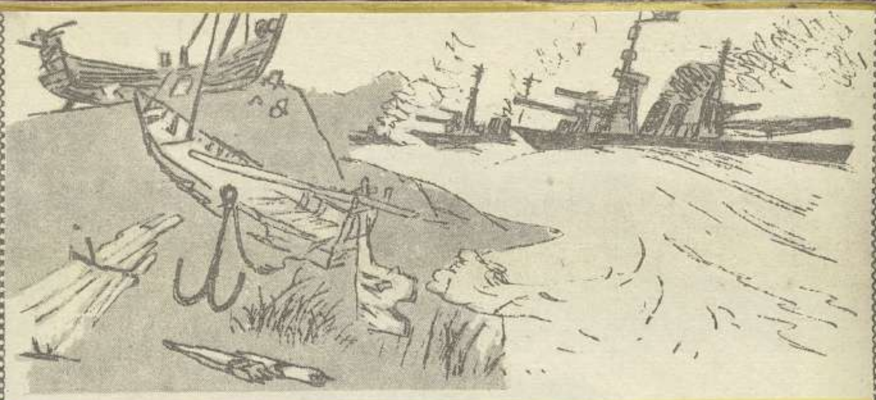
리조 때부터 서해 대 어장으로 꼽히던 군산 만에 들어서면 대소 16 개의 풍치 좋은 섬들이 보인다.

그전날에는 온 동네가 고기잡이에 떨쳐 나서 포구가 떠들썩 했건만 이지막은 다만 갈매기 소리만이 요란할 뿐이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원해 어업은 80%가 파산되고 삼치 잡이 업자들도 40%가 휴업이며 오징어 잡이는 무려 95%나 줄어 들었다는 보도를 남조선 신문 지상에서만 보든 것을 직접 목격하니 애통함을 참을 수 없다.

어장이란 어장은 미제의 주구들이 틀어 쥐고 있으며 어민들은 헤아릴 수 없는 가렴 잡세를 집어 쓰고 있다. 이렇게 뜯기고 빚에 쪼들린 어민들은 농촌에 《립도 선매》가 있듯이 어촌에는 《입망 선매》라는 것이 있어 고리채를 써야 할 형편이라 한다.

남조선 어민들이 해초류와 조개 부스러기로 연명하거나 굶어 죽는 이 시각에도 군산항에는 농민들이 피땀으로 지어 좋은 옥백미가 쌓여 있으며 양키들의 지시에 따라 외국에로 실리여 가고 있다.



설상 가상으로 량항 호포들에는 모조리 미국 군함이 틀어 앉아 군항으로 화하였고 그 좋은 어장들에서 군사 훈련을 한다고 폭탄을 터뜨리고 대포질을 하여 고기들이 오다가도 다 달아나 버린다는 것이다.

미국놈들 등살에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보잘 것 없는 조선업도 찌그러 들어 조선소의 조선대에는 잡초가 무성하다. 고기를 잘 못잡아서 가난한게 아니라 배가 없고 그물이 없어 고기를 못잡는다니 얼마나 절통한 노릇인가

그러니 고향땅이 제아무리 좋아도 어찌 배겨 날 도리가 있겠는가 굶고 참다 못하여 많은 어민들이 어구마저 팔아 먹고 지게 벌이라도 하려고 정처없이 떠나야 한다.

살'길을 요구하여 아사 지경에 견디다 못하여 남조선의 포구마다 섬마다에서 어민들은 일떠서고 있다.

미제를 남녘땅에서 몰아 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웨침이 남조선 전 지역을 휩쓸고 있다.

조 명식 그림

철없이 날 뛴다

백 인균 그림

사면초가

백 인균 그림

략탈거미줄

백 인균 그림

《초상화》

최 경화

—무슨 죄로 자네는 잡혀 왔나?

—그림을 그렸다구요.

—그림? 아니, 그림 그리는 것두 《포고 18호》 인가에 걸린다던가? 조국 통일을 요구했다던가, 요구할려고 생각하였다던가 했을 때엔 나처럼 고랑쇠 신세를 면치 못하지만…

—그 놈의 《초상화》를 그렸거면요.

—그 군사파쑈분자두목의 초상 말이지? 아니 그거야 고랑쇠가 아니라 《훈장》 개나 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명령이라 그리기는 그렸는데 눈, 귀, 입을 빼놓고 그렸거면요.

—그건 왜?

—사람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총칼로 들볶는 놈, 엣따 네놈도 어디 한번 눈이며 귀, 입 없이 살아 보아라 하고…

—분에 못 이겨서 붓 끝이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지…?

—게다가 모가지도 안 그렸거면요.

—그건 또 어째서?

—그까짓 것 며칠 붙어 있지 못할 미치광이의 모가지를 그려서 뭐 합니까?

분별 없는 망동

최 영근 그림

—여보! 케네디, 어서 일어나 제'상이나 차려 주게… 안 창수 그림

잔치 후의 봉변

오 홍태

《군사 소동》 바람에 괴뢰군 《장교》로 충주시 시장 자리를 강탈한 그의 처제가 결혼식을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시청 직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시장 처제 결혼식을 어떻게 한다》

《공무원 숙청을 떠드는 판인데 기념품을 올려 바쳐야 할거야》

《헌데 그 치가 입만 벌리면 허식을 그만두라구 씨버리지 않아》

《그거야 말 뿐이지 원, 력대 시장치구 먹여서 나쁘단 놈 있어?》

《그렇지만 너무 극성스럽게 굴어서… 먹이면 먹였다고 트집이고 안 먹어면 안 먹였다고 트집일테니 어떻게 한담》

이런 뒤'공론은 시장과 리권 관계를 맺은 상인들 속에서도 벌어졌다. 상점이고 공장이고 비위만 틀리면 닥치는 대로 《폐쇄》하며 《차압》하는 바람에 상인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쓱덕거리게 되였던 것이다.

《결혼식이라는 게 필경 먹겠다는 수작인데 어떡헌다》

《칼 자루를 쥐우고 사니 어렇게 죽을 놈은 백성들이라니깐》

《며칠 갈 것 갈진 않아도 먹겠다는 놈은 먹여야 하지 어찌겠는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도지사》 자리를 강탈한 자가 명령을 발표했다. 내용인즉 《국민 도의》를 앙양시키기 위하여 《결혼 즉 혼인 잔치를 하지 말 것, 방문객은 인사 후 즉시 돌아 갈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 《국민 도의》가 아니라 《양키 도의》를 《명령》한 것이라고 비웃게 된 것이다.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옛날부터 조선 인민의 도의에는 혼인 잔치를 하지 말라는 따위의 법이 없으며 더우기 방문객이 인사만 하고 성난 사람처럼 되돌아서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어데 두고 보지, 시장 놈이 잔치를 안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쑥덕거렸다.

드디어 잔치 날이 왔다. 《약바른》 직원들과 상인들은 뒤'문으로 돈 뭉치와 《기념품》을 보냈던 것이다. 헌데 잔치는 《군사 명령》대로 차리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인사만 하구 되돌아 가라구 호령하였다. 그리하여 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부조만 놓고 되돌아서 나왔다.

《차라리 잘 됐어 녀절한 술이라두 한잔 먹었다가는 후에 또 재미 없을 건데》

《하여간 귀신하군 아에 친하지 않는게 좋와, 잡귀가 붙으면 봉변을 당하기 마련이니깐》

잔치 집에서 나오면서 하는 소리들이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자 시장 집에는 찦차들이 한대 두대 모여 들고 이윽고 술판이 벌어졌다. 초저녁부터 벌어진 술판은 아침녘까지 계속되고 제법 일본 군가까지 들려 나왔다. 다음날 거리에는 간밤의 시장 잔치 집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군복 입은 고관들만 모여서 기생까지 끼고 징탕망탕 처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또다시 코방귀를 뀌였다.

《흥 부조는 우리가 내고 먹기는 저희들 끼리만이지》.

직원들도 상인들도 어떻게 됐던지 간에 시끄러운 일을 넘겨 버렸다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다.

《시장》 실에 10여명의 직원들이 호출 당했다. 군복 입은 시장이라는 자가 《군대식》으로 호령을 쳤다.

《일체 허례를 그만두라구 했는데 당신들은 우리 잔치에 부조를 보냈으니 군법을 어긴 것으로 오늘부터 면직 처분함》.

한편 장거리에 있는 몇몇 상인들이 경찰에 호출되였다.

군복 입은 《경찰 서장》이 호령을 쳤다.

《시장 결혼식에 돈을 보냈으니 군법을 위반한 것으로 군사 재판에 회부함》

상인들은 즉시로 류치장에 감금되였다.

다음날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되였다.

직원 중에서 만환 이하의 부조를 낸 사람이 《면직 처분》을 받게 되고 상인 중에서 10만환 이하의 금품을 바친 사람만 《군사 재판》에 회부되였던 것이다.

《이건 정말 깡패식이군》

《그런 놈의 밑에서 사환'군 노릇하기 보다 차라리 속이 시원하네》

《끝장이 나는 날이 멀지 않았으니 두고 보세》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주고 받는 말이다.

《군사 재판》에 회부된 상인들은 중얼거렸다.

《귀신들과 인연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이꼴로 됐으니 허참, 망할 놈의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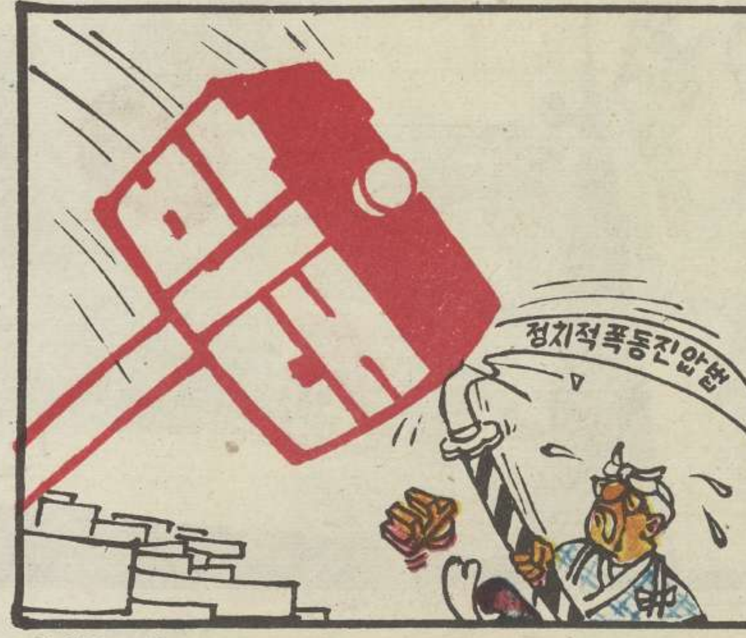
《흥 끝내 미친 개에게 물리구 말았군》

그 자 들에게 부조를 보낸 것이 벌써 잡귀들과의 인연으로 되였던 것이다.

미친개는 때려 잡아야 사람들이 상하지 않는 법이다.

좌절?

좌절!!!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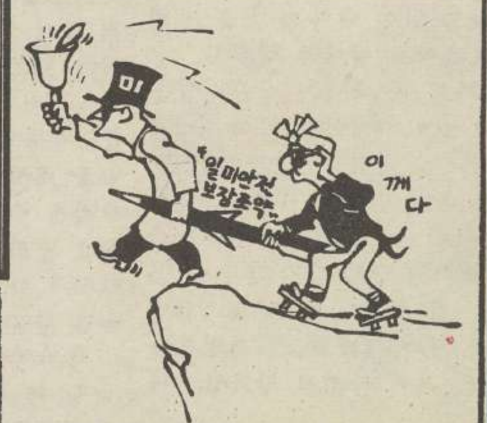
최후 발악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느고딘 디엠을 사촉하여 매국 독재 정부를 세우고 이것을 간섭과 침략의 도구로 리용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을 전쟁 준비를 위한 자기의 병탐 기지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만화 속담

눈먼말 원앙 소리에 따라간다



눈먼말 원앙 소리에 따라가듯 미제의 위험한 침략 정책에 추종하는 이께다 반동 정부의 정책은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안팎 곱사등이

케네디의 대내 대외 정책은 거듭되는 실패로하여 안팎 곱사등 모양 비참한 곤궁에 빠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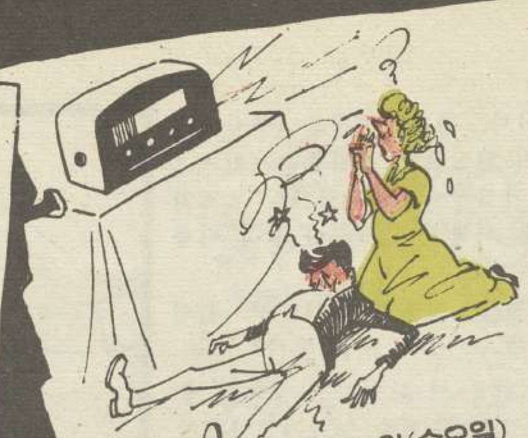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케네디의 일기

2월 20일(월요일)

내가 백악관의 주인으로 된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할 길이 막연한 경제 쇠퇴, 만신창이된 대외 정책, 아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서툰 줄타기 곡예사가 마사진 외바퀴 자전차를 굴리게된 신세니 이 기구한 나의 운명을 그 누구에게 하소연 한단 말인가?



4월 12일(수요일)

나는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길로 일기를 쓴다. 쏘련에서 가가린 소좌가 첫 우주 비행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아나운사의 흥분된 음성이 나의 귀'전을 때렸다. 그후의 일에 대하여 나는 모른다. 나의 안해의 말에 의하면 그때 기절했다고 한다.

4월 18일(화요일)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그토록 미국 장교들이 1년이나 길러낸 자유 투사들이 큐바에서 전멸되였다니. 그런데 망하는 집안에는 싸움질도 많다드니 국방성, 국무성, 중앙 정보국은 살아 남은 식충이들을 가운데 놓고 참패의 책임을 서로 넘겨 씌우려고 옥신각신 야단이다. 아 골치야…

5월 25일(목요일)

오늘은 아침부터 골치가 쑤신다. 무장 간섭으로 해결하지 못한 라오스 장악 계획을 달성하려고 러스크를 파견하였었으나 수포로 돌아 갔다. 오히려 회의에서 쫓겨 나다싶이 바지도 채 입지 못한채 울상이 되여 돌아 왔다. 라오스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또 실패한 셈이 아닌가?

6월 11일(일요일)

오늘은 일요일이다. 그런데 온 종일 쉴새 없이 전화를 받기에 팔이 떨어질 지경이다. 도미니카의 사태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소식, 일본에서 《정치적 폭력 방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좌절되였다는 소식, 남조선의 장 도영도 며칠 못가겠다는 소식, 세계 도처에서 미국이 규탄받고 있다는 소식, 왜 이렇게 일이 꾀이기만 하는가?

오─주여 나를 보살펴 주옵소서…

허 능택 그림

케네디식 정치의 모범

로 철

—하하 그러니 젊은이 결국 내 딸을 달라는 말이지? 챨스톤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최근 대대적으로 이름나기 시작한 대 상인, 대 은행가이며 케네디 대통령의 극진한 총애를 받고 있는 내라는 것을 자네도 잘 알지 않나! 그래 내 사위가 되여 보겠다는 말이지 하하하.

물론 자네가 지금부터 5년전에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내 딸을 구원해 준 것은 사실이네. 그리고 그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젊은이, 그 따위 인도주의이니, 사랑이니 하는게 대체 몇푼어치의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런 것에서는 단 한푼의 딸라도 나오지 않는다는건 어느 누구보다도 자네 자신의 그 째지도록 가난한 호주머니가 잘 증명하여 주고 있지 않는냐 말이야. 뭐? 내 딸과의 결혼을 승인하여 주기만 한다면 내 덕을 입어서 밑천을 마련해서 앞으로 《대 정치가》가 되여 보겠다고? 그렇게만 되면 장차 큰 돈을 벌게 될게라고? 하하하. 그러니 쉽게 말하면 나보고 투자를 해라 그 말씀이지?!

그런데 젊은이, 나는 확실한 담보가 없이는 엽전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 성미라는 걸 미리 말하여 두어야 하겠네.

《대 정치가》가 되겠다구? 하하하. 물론 정치라는게 큰 돈 주머니를 의미한다는 자네 의견에는 나도 100% 동감이네. 그러나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례를 들어 보세. 케네디 대통령을 보라구! 나는 자네에게 그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한 연설 한구절을 상기시키고 싶네

《력대 대통령들은 우리를 미증유의 난국에 빠뜨려 놓았소. 지금 력사의 흐름은 공산주의 편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소. 이것을 우리 편에 돌려 놓기 위해서 뜻 있는 미국 사람들! 미국 국장에 새겨 있는 것처럼 한손에 오리브의 아지를,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모두 나를 따라 용약 나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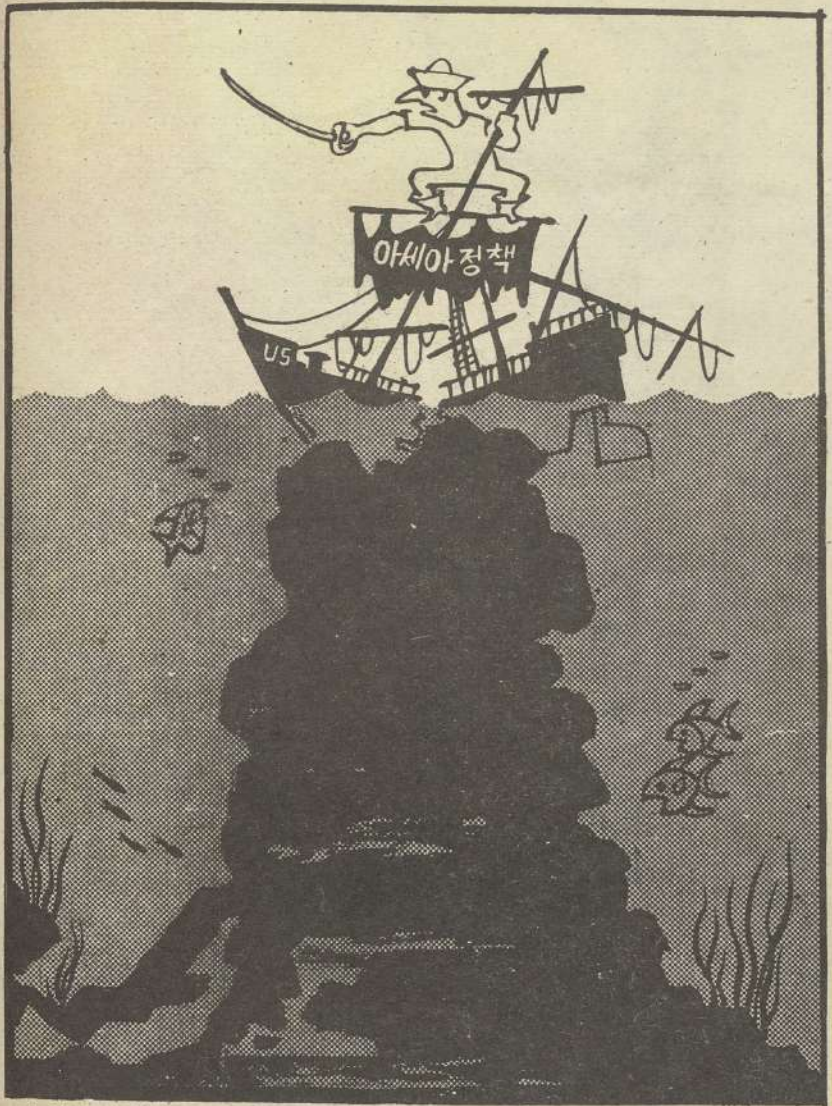
얼마나 《대 정치가》 다운 《연설》인가 말야! 대통령은 곧 행동에 착수했었네!

취임한지 한달도 못돼서 그는 유엔의 기'발을 들고 우선 콩고에 쳐 들어 갔고 다른 한손에는 칼을 들고 루뭄바를 쳐 죽였는데 이것이야 말로 《참다운》 정치였거던! 뭐! 살인하는게 곧 정치냐고? 하하하. 그러니까 자네는 아직 너무도 어리단 말야! 생각을 좀 해보라구. 루뭄바는 그 당시 우리가 콩고의 그 풍부한 금, 동, 우라늄광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콩고의 금고의 금고》를 지키고 있던 무서운 수위였거던. 이 수위를 쳐 죽여 놓으니 그 탐스러운 재부가 술술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 오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과연 이것이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그 통에 나도 한몫 단단히 봐서 일약 갑부가 됐단 말이네, 하하하. 어데 그 뿐인가!

케네디는 련일 《친선》이요 《평화》요 《원조》요 하고 그럴듯하게 연막을 쳐 놓고는 라오스에서, 남부 월남에서, 큐바 해안에서 그리고 불란서를 시켜 알제리야에서 전쟁의 불'길을 더욱 키질해 놓았지. 물론 이러한 정치가 다 성공한 것은 아니였지, 더군다나 큐바에서는 서뿔리 쳐들어 갔다가 개코 망신을 당한 것도 사실이네만 이렇듯 나 같은 장사'군들만은 큰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단 말야.

뭐? 그런 큰 돈벌이를 하려고 해도 밑천이 있어야지 할 수 있을게 아니냐고? 그러니 내가 그 밑천을 어데서 마련했는지 알고 싶단 말이지?.

암초에 걸렸다



최 영근 그림

그것도 역시 케네디식 정치의 덕분이였다고 말할 수 있지. 케네디가 대통령 직에 취임한 그 이튿날이였네. 그의 측근자가 며칠 후에 남조선에서 환률을 대대적으로 인상시킬 것이라고 귀뜸해 주더구만. 나는 귀가 버쩍해졌지. 이 통에 밑천이나 단단히 장만해 놓자구 말야. 그래 그 길로 남조선으로 달려 갔는데 아니나 다를가. 케네디 대통령이 남조선 환률을 1딸라 대 1300환으로 버쩍 올려 놓지 않았겠나? 하하하.

자, 보라구! 케네디가 취임한지 5개월만에 얼마나 《위대한》《대 정치》를 해놓았나 말야!

그런데 자네는? 이 5개월 간에 인도주의이니, 사랑이니 하는 따위를 속삭이면서 내 딸을 끼고 돌아 다닌 것 밖에 뭐 있느냐 말야 응?

안돼, 안돼! 내가 무얼 믿고 자네 따위에게 내 딸을 줄 수 있겠냐 말야? 절대로 못 주겠으니 그리 알게!

× × ×

그후 챨스톤은 업무 관계로 약 1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였다.

돌아 와 보니 한장의 편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존경하는 챨스톤 선생! 당신의 말씀은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나도 케네디식 정치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지요. 그래서 우선 당신 부재중에 댁의 그 "무서운" 수위를 쳐 죽이고 실례이지만 당신의 금고를 빼앗아 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따님을 모시고 우리는 카나다로 갑니다. 아마 당신은 그처럼 경비가 심한 댁의 큰 문, 작은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느냐 물으시겠지요? 그것도 역시 케네디식 정치의 덕분이였는데 《친선》이요 《평화》요 《원조》요 하는 식으로 경비원들을 깜쪽 같이 속여 넘길 수 있었지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하하여 주시며 나 역시 케네디에 못지 않는 대 정치가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당신의 젊은이

피비린내 나는 미국의 력사(2)

1)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하여서도 오랜 예'날부터 침략 책동을 감행해 왔다. 그것은 1866년 조선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물귀신이된 미국 해적선 사만호의 침입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2) 제국주의 렬강들간의 식민지 략탈전에 나섰던 미제는 조선을 직접 침략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던 끝에 일제와 공모하여 태평양 지역에 대한 침략을 묵인 받고 그 대신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적극 도와 주었다.

3) 1882년에 미제는 조선에 예속적인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고 선교사들을 파견하여 조선의 식민지 예속화를 촉진시켰으며 수다한 경제적 특권을 강탈하였다.

4) 미제는 1차 대전 시기에 1917년초까지 교전 쌍방에 무기를 팔아 전쟁 폭리를 얻었다. 레닌은 미국이 1차 대전 시기에 긁어 모은 《한딸라 한딸라에는 1천만명의 전사자와 2천만명의 불구자가 흘린 피바다에서 흘러 내린 피의 흔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5) 미제는 10월 혁명의 산아를 압살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독일, 영국, 불란서, 일본 침략자들의 무장 간섭을 뒤에서 조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무기를 들고 이에 참가하였다.

6) 제 1차 대전후 미제는 독일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그를 반쏘 침공의 《돌격대》로 리용하기 위하여 독일 군수 공업을 발전시켰다. 1925~1929년까지의 5년 간에만 해도 미 독점 자본가들은 독일 군국주의자의 호주머니에 8,425억 딸라의 막대한 금액을 넣어 주었다.

(다음 호에 계속)

안 창수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 25545
발행 1961. 7. 20

(값 40 전)

8280 хельсаль

95
Dup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